

이강소 선생님 인터뷰 (2021)

《몽유》전은 회화 작품만 엄선한 전시입니다. 전시에 공개되는 신작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캔버스 작업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변화하는 저에 의해 그려지는 회화, 매 순간마다 조금씩 낯선 저에 의해 문자처럼 쓰여지는 회화, 그리고 순간 저에게 매혹적으로 자극을 준 색채에 의해 그려진 회화. 그리고 붓질의 느낌과 빠름을 경험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습관적인 붓질로부터 조금씩 이나마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회화를 보면서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신다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들 사이 찰나들의 간극, 금방 사라지겠지만 이를 반복해 보면서 또 다른 찰나의 간극을 간파해 내신다면 하고 희망해 봅니다. 저는 직관이란 모험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의 기 에너지가 관객에게 어떠한 자극을 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회화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 오셨죠? 그 실험과 탐색 과정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1970년대 중반, 저는 "현대"에 걸맞은 새로운 평면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평면 회화란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제 자신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분석적인 작업으로 출발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새삼스럽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천으로 되어 있는 캔버스의 올 실을 몇 가닥 뽑아서 작업을 하거나, 나아가 캔버스 천에 이미지를 세리그래피로 찍은 다음 올을 한두 가닥 뜯어내어 물감을 살짝 묻혀 본다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경험했습니다.

1980년대 초중반에는 캔버스에 마구잡이로 붓질을 하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리 마구잡이로 한다고 해도 어린 시절부터 지속해 왔던 습관에 따라 풍경화적인 붓질의 습관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과거의 붓질, 습관적인 붓질로부터 좀 벗어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붓질을 하고자 희망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붓의 오랜 역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가장 민감하고도 강력한 기운을 공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따라서 저는 새로운 경험의 붓질을 찾아 회화 작업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붓질의 세계는 살아있는 기 에너지의 교류입니다. 저는 맑고 밝은 기운을 드러내어 이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1970년대에 선보이신 전위적이고 개념적인 영상, 퍼포먼스, 조각, 설치 등의 작품과 회화 작업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의 회화가 매 순간 예측할 수 없는 기운의 변화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듯이, <여백>, <소멸(선술집)>, <낙동강 이벤트>와 같은 조각, 세라믹, 퍼포먼스 작업들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에 함께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1970년경부터 저는 설치, 행위, 영상 작업 등 실험적인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보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회화나 조소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평면, 새로운 조각의 형식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다수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면 혹은 조각의 현대적 해석의 실현은 제게 있어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절실한 희망이었습니다.

1971년 갈대 작품 <여백>, 1973년 명동화랑에서 선보인 <소멸(선술집)> 등의 작업을 하면서 이 현실의 세계가 의심스럽고 실재한다고 동의하기가 어려워졌던 저의 회의는, 1975년 저의 평면 작업 출발의 새로운 동기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조각이 “만드는” 조각이었다면, 저는 “만들어지는” 조각 <Untitled-7522>(깨어진 돌)을 시도해 보고자 했고, 조소의 방법으로 1981년부터는 점토와 석고, 브론즈 같은 전통적인 조소의 재료로 “만들어지는” 작업으로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점토를 주조하지 않고 그대로 구워 내는 세라믹 작업은 저에게 새로운 조각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이를 계기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실험적인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선별 정리를 하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작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회화, 조각, 설치, 행위 등 모두가 특정한 제가 그리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나,’ 특정할 수 없는 ‘나’에 의해서 그려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인칭의 관객 또한 각자 순간순간 변화하며 관계하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미술작품 내부의 구조나 형식에서 나아가, 선생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기운과 그 사이의 관계를 늘 강조해왔습니다.

우리들이 ‘우주’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늘을 떠올리게 되는데, 인간의 내면으로 향해도 무한한 우주가 펼쳐져 있어 실로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세계에서 너무나도 미세한 먼지처럼 떠돌아다니면서 환영을 그려내며,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화는 이들 환영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작업의 시각적 풍경이나 추상은 저에게 있어서도 확실한 정경을 구조해 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작업들에 대해서는 3인칭의 관객들과 마찬가지로 매 순간마다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작품을 볼 때, 관객이 어떤 경험을 하기를 기대하시나요?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과 감정을 관객들이 일방적으로 이입 받는 형식은 근대서구미술의 특징적인

형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고는 17세기부터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데카르트나 뉴턴의 생각이 지배하던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관습들은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나 코펜하겐 학파들의 양자역학의 개진 이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는 현대라는 세계에서는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우리 인류의 사고와 삶은 끊임없이 변화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술 또한 과학적 진리와 함께 부드럽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향유해야 할 것입니다. 주체도 객체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하는, 그야말로 온 우주가 심포니를 연주하는 신비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구조되어 있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이러한 생각들의 실마리를 제공해 보고자 노력할 뿐, 저 역시 관객과 같은 입장으로 이를 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 작업은 저 자신이나 관객들에게 보는 순간마다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을 찾고자 노력합니다.